

성역할정체감, 사회적 지지 및 일상적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이 영 미 김 정 희

전북대학교

본 연구는 맞벌이 주부(N=138)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살펴보고, 성역할정체감, 사회적 지지 및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본 것이다. 성역할정체감 유형은 양성성과 미분화형이 같은 분포를 이루었고 남성성과 여성성이 같은 분포를 이루었다. 그리고 양성성과 미분화형의 분포 비율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분포비율 보다 더 높았다.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보면은 여성성과 양성성이 남성성과 미분화형보다 결혼만족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여성성과 양성성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맞벌이 주부의 성역할정체감, 사회적 지지 및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보면은 성역할정체감이나 일상적인 스트레스보다는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을 더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속도로 산업화, 도시화되어 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가족의 중요성이 점차로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대가족 체계가 부부 중심의 핵가족 체계로 변형되어 가고 있으며, 개인이 결혼 생활에서 경험하는 만족의 정도는 부부 자신들만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인격 형성에 있어서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원만하지 못한 부부 관계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예, 청소년 비행, 이혼율 증가)를 야기하는 등, 가정에서 파급되는 많은 문제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결혼만족도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비교적 초기 연구를 보면은, Burgess와 Locke(1945)는 “한 개인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만족하는 가에서부터 불만족

하는가에 이르는 연속선상의 태도”라고 하였다. Hawkin 와 Janes(1968)는 “결혼 생활 전반에 대한 부부의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인 감정이며 일종의 태도”라고 정의하였고, Burr(1974)는 “결혼 생활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감정과 태도”라고 결혼만족도를 개념화하고 있다. Lewis와 Spanier(1979)는 “한 사람이 가지는 결혼에 대하여 갖는 기대와 그가 실제로 받는 보상의 일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Roach(1981)는 결혼만족도가 “주어진 시점에서 자기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시간적 차원에 따라 경험되어지는 선호의 태도”라고 보았다. 이정연(1987)은 “한 개인의 결혼 생활의 여러 영역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 즉 일종의 긍정적 혹은 호의적인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결혼만족도의 정의가 학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만족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만족에 대한 정의는 다음의 두 가지 견해로 구분할 수 있다(최규련, 1988).

첫째, 한 개인이 가지는 기대와 그 사람이 실제로 받는 보상 사이의 일치 정도로서 정의하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결혼만족도는 태도나 주관적인 평가라기 보다는 “개인의 결혼에 대해 가지는 기대와 결혼의 결과 사이의 일치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주관적으로 경험되어진 현상으로서 즐거움 대 괴로움, 행복 대 불행, 충족감 대 불만의 정도를 말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기대하는 바와 실제로 받은 보상간의 일치 정도는 만족을 정의하는 특성이라기보다는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태도로서의 결혼만족도 개념이 심리적인 면을 중요시하는 개념으로서 기대와 보상간의 일치 정도라는 개념보다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두 번째 만족 개념에 근거한 결혼만족도 개념을 사용하였다.

결혼만족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결혼만족도와 관계 있는 변인들 크게 인구 통계적인 변인, 심리-사회적 변인을 들 수 있다.

결혼만족도와 관계성을 보이는 인구학적인 변인으로는 학력, 취업 유무, 생활 수준 등이 있다. 학력이 낮은 집단보다는 높은 집단이 결혼만족도가 높고(김명자, 1977; 오명숙, 1978; 유영주, 1979; 최규련, 1984), 가정 생활 수준 또한 결혼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김명자, 1977; 오명숙, 1978; 이옥진, 1982; 최규련, 1984). 이미숙의 연구(1985)에서도 남편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의 생활 수준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지속적인 결혼 생활의 만족에 영향을 지닌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취업 유무별로 볼 때는 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유영주(1979)의 연구에서는 주부가 취업할 경우 만족도가 낮았고, 김혜선(1981)은 문헌 고찰을 통하여 취업 유무 그 자체보다는 남편의 지지 여부가 이 관계를 중재하는 요인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정우(1974), 임정빈과 정혜정(1986)의 취업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주부의 취업관 또는 취업 동기에 따라 결혼만족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였다. 서동인(1985)의 연구에서는 취업 주부의 직업

만족도가 결혼 만족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취업 유무 자체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에서 재검증이 필요하다. 한편, 결혼 지속 년수, 자녀수, 자녀의 성별구성등은 결혼만족도와는 별 관련성이 없는 변인들로 보이며(이미숙, 1985), 가족 형태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들(최재석, 1970; 김명자, 1977; 유영주, 1979)이 있지만 현재의 한국 사회의 변화를 수용한 가족 형태의 구분이 정립된 후 결혼만족도와와의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만족도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의 관계를 종합해 보면, 학력과 생활 수준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으며 취업 유무는 결혼만족도에 일관성 있는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혼 지속 년수, 자녀수, 자녀의 성별구성등은 결혼만족도와는 대체로 관련성이 없는 변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만족도와 관련되는 심리-사회학적 변인들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의 변화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족이 주로 여성의 세계라고 생각된 반면, 사회 집단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행위 영역은 남성의 세계로 간주되어 왔다(주경란, 1980).

전통 사회에서 주부의 주요 임무는 가사와 육아, 가족원의 정서적 안식처 역할이었음에 반해 산업 사회에서는 가정 일의 단순화, 자녀수 감소에 따른 가사와 육아 일의 경감, 기술진보와 근로조건의 향상으로 인한 여성근로처의 확장, 남녀평등 사상 및 여성 해방 이념들과 같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여성이 취업을 통해

남성의 세계에의 참여율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성의 취업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내재하는 전통적 가치관은 여성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즉, 외면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종래의 종속적인 입장에서 탈피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가부장적 권위구조의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박은희, 1992).

오늘날의 직장 여성들은 가정적 역할을 그대로 맡으면서 동시에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직장 여성들이 이중적 역할 수행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사회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기는 부조화 및 갈등은 여성들에게 자아 정체감의 혼란, 역할간의 갈등 및 기대와 현실간의 격차 등을 일으키고 이는 여성의 직업 영역에서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야기시킨다고 볼 수 있다.

Goode(1960)가 역할 긴장을 연구한 이래, 이 개념은 현재 역할 갈등, 역할 과중 등의 개념과 중복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개념으로 역할 긴장을 채택하고 있다. Burr(1979)와 Rollins와 Galligan(1978)등의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가들은 역할 개념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는데,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주로 역할 평가, 역할 긴장이 결혼만족도와 관련되는 변인으로 나타난다. 역할 평가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보다는 배우자의 평가가 결혼만족도와 더 큰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입증되었다(Albrecht & Kunz, 1976; Brinley, 1975; Burton, 1971;

Chadwick, Bahr, Chappell & Leigh, 1983; Nye & McLaughlin, 1974). Nye(1982)에 의하면, 배우자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가 결혼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남편보다는 아내에게 더 크게 나타나고, 여러 역할 중 배우자의 심리 치료적 역할과 가족 오락 역할의 평가 정도가 특히 결혼 만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규명되었다. 서동인(1985)의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역할 긴장이 결혼만족도를 감소시키는 변인으로 나타났다는데, 남편들의 경우에는 부적 관계성을 보이었고 부인들의 경우에는 그 관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임정빈과 정혜정(1986)의 연구에서는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는 역할 갈등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혼만족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인구 통계 학적 측면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심리-사회학적 변인과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결혼만족도와 관계된 변인들 중 심리-사회학적 변인들로는 역할 변인과 성격 변인을 들 수 있으며 성격 변인들로는 자아실현성에 관한 연구도 있으나 성역할정체감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연구의 예를 들면, 신혜섭(1985)은 성역할정체감이 부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양성성인 사람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어 적응을 잘 하는 유형(Bem, 1974)이므로 결혼 생활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역할변인과 관련된 변인 중 역할 긴장 혹은 역할부담은 과도한 자극과 같은 의미인 과잉 부담으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요구 수준이 그 요구들을 실현시킬 능력을 벗어난 상태를 말하므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이러한 요구들이

우리들의 능력을 벗어날 때 괴로움을 느끼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한국 사회를 비롯한 많은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남자는 남성적인 특성을, 여자는 여성적인 특성을 지니는 것이 심리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60년대에 시작된 여성 운동, 인권 운동, 최근의 남성 해방 운동은 새로운 흐름을 인식시켰는데, 특히 가정에 대한 가치 및 태도, 육아, 인간의 삶에 있어 결혼의 의미,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의 가능성 등에 대한 신념이 변화함으로써 여성들의 역할 참여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과거의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으로는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삶을 요구받는 현대 여성상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여성 운동과 최근의 심리학적 이론은 전통적인 성역할들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여성의 자아실현과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위한 융통성 있는 새로운 성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등장한 것이 “심리적 양성성”이라는 새로운 성역할 개념이다(Bem, 1974). 양성성 개념은 1970년대 초반에 소개되었고, 그 정의는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이루는 내용 중에서 바람직한 여성적 특성과 바람직한 남성적 특성이 결합되어 공존하는 것이다(Kaplan & Sedney, 1980 ; 정진경, 1987).

성역할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게 한 양성성은 개인적 성숙을 용이하게 하고, 자아실현을 가능케 하며,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개개인의 발전을 중시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 현대 사회의 생활에 더욱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Bem, 1974).

이 유형의 사람들은 도구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남성적인 행동을, 표현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여성적인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그 상황에서 요구되는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Bem & Lenney, 1976). (Orlofsky, 1982)에 의하면 현대의 상황이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뚜렷이 구분하는 면이 점점 적어지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어서 전통적인 남성, 여성 보다는 심리적 양성성이 행동상 적응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취업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Rother & Weinor, 1983), 양성적인 사람은 그들의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극도의 긴장을 줄이며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다. 성역할도구로 측정할 수 있는 성역할정체감의 유형은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화로 분류할 수 있다. 남성성 정체감은 그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남성다운 특징들로 인정되고 있는 특성, 즉 적극성, 활동성, 성취 지향성, 독립성, 공격성, 경쟁성, 자기 신뢰, 주도력, 통솔력, 지배성, 권위 지향성, 야망성 등의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남성성 변인의 점수가 높고, 여성성 변인의 점수는 낮은 경우이다. 여성성 정체감은 그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여성다운 특징들로 인정되고 있는 특성인 양육성, 순종성, 의존성, 민감성, 동정성, 변덕스러움, 애교심, 질투심, 말이 많음, 쉽게 울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성 변인의 점수는 높고, 남성성 변인의 점수는 낮은 경우이다. 그리고 양성성 정체감은 한 개인 안에서 남성적 특성, 여성적 특성이 통합되어 남성적이면서 동시에 여성적일 수 있고, 도구적인 동시에 표현적일 수 있어 남성성 변인과 여성성 변인의 점수가 모두

높은 경우이다. 미분화 정체감은 남성적 특성, 여성적 특성 중 어느 한 쪽도 제대로 표현되지 않아 남성성 변인과 여성성 변인의 점수가 모두 낮은 경우이다(Frings-Rafferty, 1980; 김영희, 1988).

부인과 남편의 성역할태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Scanzoni(1975)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연구에서는 성역할 태도가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남편과 부인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근대적 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하여 결혼만족도가 높으므로,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는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성역할 태도와 주부의 직업 유무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연구한 박태운(1983)의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전문직 주부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근대적 태도를 지닌 비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민경신(1986)의 연구에서는 도시 주부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양성적 집단이 미분화된 집단이나 남성성 집단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여성성 집단도 남성성 집단, 미분화 집단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 여성성 집단과 양성성 집단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양성적인 주부가 다른 주부에 비해 자녀 관계에서 만족도가 높고, 자아 실현성이 높은 주부일수록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고한 이정연(1987)의 결과와도 상통한다. 또한 김양호(1989)의 연구 결과에서도 부인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이 남성성이거나 미분화형일 때보다는 양성성일 때 부

인 자신의 만족도가 높았고, 양성성과 여성성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김명순과 이주옥(1988)의 연구에서는 양성성 유형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미분화 유형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민경신(1986), 이정연(1987) 및 김양호(1989)의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여성성 유형을 지닐 때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지금까지 성역할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전업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직업을 가진 부인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맞벌이 주부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등을 구체적으로 측정하여 중다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맞벌이 주부들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다룬 연구는 없다.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자원중의 하나이다. 예컨대, Kaplan(1983)은 심리적 고통은 자기 거부적 태도와 사회적 지지의 결핍 및 부정적 생활 사건의 함수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Mittchell(1983)은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사람들이 역경에 처했을 때 사회적 지지가 없으면 스트레스 유도적 질병에 더 취약해지며, 사회적 지지의 결핍 자체가 심리적 손상을 가져오기도 한다고 언급하였다. Arnott(1972)는 남편의 지지 및 태도는 아내의 취업이 가족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Thomas(1984)는 남편의 지지가 낮을 때 취업 주부는 역할 과중 및 가정관리의 과다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Burke와

Weir(1977, 1982)는 남편의 지지 유무는 취업 여성들이 경험하는 역할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중재 혹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아내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가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Housenecht(1981)은 남편의 지지는 결혼 해체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고 밝혔다. 또한 Berke와 Weir(1976, 1977), Thomas(1984)은 배우자의 도움과 결혼만족도는 정적인 관련이 있어서, 배우자의 도움에 만족할수록 생활 만족과 결혼만족은 높아지며, 특히 남편의 자녀 양육의 책임을 분담할 때 결혼의 질은 높아진다고 하였다. Houseknecht와 Macke(1981)는 전문직 여성의 결혼 적응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것은 가족이 아내의 직업에 편의를 도모해 주는 정도이며, 특히 남편의 지지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주경란(1980)은 Mead(1943)가 개념화한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적용하여, 기혼 여성이 직업을 가질 경우, 가장 유의미한 타인인 남편의 협력 없이 한 여성이 제한된 시간과 체력을 가지고 아내, 어머니 역할과 직업여성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조화시키기는 어렵다고 했다.

맞벌이 주부들은 또한 집안 일과 직장 일을 다 잘해야 한다는 슈퍼우먼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 슈퍼우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관계없이 직장인, 주부, 어머니, 아내, 며느리라는 서로 상충되는 역할을 완벽하게 하려는 사람으로, 많은 여성들이 신체적·심리적으로 갈등하며 알게 모르게 슈퍼우먼 콤플렉스에 빠진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심한 불안감, 초조감, 죄책감 등으로 고통을 받는

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서 불안해지고 긴장하게 될 때 이를 공감해 주고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 주는 가족들의 사회적 지지, 특히 남편의 지지가 없다면 맞벌이 주부들의 경우 신체적인 질병을 갖게 되며, 우울증을 나타내게 되어 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 남편 등 주변 사람들 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이를 완충시켜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가 꼭 필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의 여성들은 과거의 전통적 관념과 새로운 가치관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시대적 흐름에 따라 결혼 후 취업 여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결혼 생활 적응에 관하여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하기는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주부의 성역할체감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파악하고, 이에 성역할정체감 유형, 사회적 지지 및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1. 연구 대상

전주 지역에 거주하는 30-40세 연령의 맞벌이 주부 [보험회사 영업 사원(50명), 교사(60명), 자영업(20명), 음식점 종업원(8명)]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 응답을 잘못하였거나, 한 문항이라도 빠뜨리고 질문지를 작성한 62명을 제외시킨 후 138명의 자료를 최종 결과 처리에 사용하였다.

2. 도 구

본 연구의 측정 도구는 질문지로서, 연구 대상자의 성역할정체감, 결혼만족도, 일상적인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인적인 사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2.1 성역할정체감

본 연구에서는 장하경과 서병숙(1991)의 한국사회의 성역할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주로 외국의 검사 도구를 번역, 수정하여 사용 하였던 기존의 척도들과는 달리, 우리 문화에서 나타나는 성역할고정관념을 선정하여 추출한 특성들을 기초로 이루어졌으며, 최근 발전하고 있는 양성성 이론의 시각에 준하여 개발된 척도이다.

이 척도는 남성성 20문항, 여성성 20문항, 공통성 10문항의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 참조). 각각의 문항들에 대해 자신의 특성에 적합한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부터 항상 그렇다(7)까지 7점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 응답자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점수의 중앙치를 준거로 하여 각 개인의 성특성을 중앙치분리법에 의해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형의 4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양성성이란 한 개인 안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통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가 모두 중앙치 이상인 집단이다. 미분화 집단은 한 개인의 성역할 정체감에 있어서 남성성, 여성성 중 어느 한 쪽도 잘 표현되지 않은 집단으로 두 점수가 모두

중양치 이하인 집단이다. 남성성 집단과 여성성 집단은 어느 한 쪽 성만의 특성이 중양치 이상으로 표현된 집단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역할정체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7$ 이다.

표 1. 중양치 분리법에 따른 응답자의 성역할정체감 분류

		여성성 점수	
		중양치 이상	중양치 이하
남성성 점수	중양치 이상	양성성	남성성
	중양치 이하	여성성	미분화

2.2 결혼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노명희와 이숙(1991)의 결혼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Roach, Frazier 및 Bowden(1981)에 의해 개발된 Marital Satisfaction Scale(M.S.S)의 문항을 수정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문항 선택을 다시 하여 구성된 것이다. M.S.S는 각 개인의 결혼상태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관계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측정하는 것이며, 결혼에 대한 태도를 변화 가능한 것으로 본 것이다. 문항에 대한 반응은 5점 척도에 의해 평가되며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이 모두 사용된다. 부정적인 표현의 경우는 점수를 반대로 배정하여 평가하고, 40문항의 총합으로 결혼만족도 점수를 나타내게 된다. 부정적인 문항은 2, 5, 6, 7, 8, 11, 14, 15, 20, 23, 24, 27, 29, 33, 34의 15개 문항이었다. 본 연구의 결혼만족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6$ 이다.

2.3.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

관계론적 입장을 강조하는 DeLongis와 그의 동료들의 견해에 따라서(DeLongis et al., 1982; DeLongis et al., 1988) 일상생활에서의 문젯거리를 중심으로 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희(1991)가 번안한 DeLongis 등 (1988)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alpha = .83$ 이다. 응답자들은 각 항목에 대하여 그것이 오늘 하루 동안에 어느 정도 걱정거리가 되었는지를 전혀 아니다(0)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3)까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 표시하도록 하였다.

2.4. 사회적 지지

개인이 얼마나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가를 알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MOS 사회적 지지 조사표(Sherbourne & Stewart, 1991)를 참조하여 김정희(1991)가 제작한 검사로서 두 가지 방법으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데, 한 방법인 가족, 가장 가까운 친척, 가장 가까운 친구나 이웃들이 어느 정도나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지각하는가를 14개의 항목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집 대상이 맞벌이 주부이므로 남편의 지지만을 측정하였다.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96$ 이다.

3. 절차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1995년 4월 30일 부터 5월 6

일 일주일 동안 맞벌이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직접 배부되어 즉시 혹은 2-3일 후에 회수되었다. 총 200부를 배부하고 170부를 회수한 후에, 응답이 부실한 질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138부를 본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수집된 자료들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가 되었는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 대상자의 성역할정체감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평균, 백분율, 표준편차를 알아보았다.
- 2)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 변량 분석과 Scheff의 추후 검증을 하였다.
- 3)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결혼 만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들 변인들의 상호작용이 결혼 만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분석을 하였다.
- 4) 모든 변인(성역할정체감, 일상적인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결혼만족도)을 포함하여 각 변인의 설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성역할정체감 유형 분포

연구 대상자를 2개의 중앙치를 이용한 중앙치분리법에 의해 4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표 2와 같이, 전체 맞벌이 주부의 성역할정체감 분포는 양성성이 52명, 미분화형이 51명, 여성성이 18명, 남성성이 17명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 대상자의 성역할정체감 분포

성역할정체감 유형	N	M	%	SD
양성성	52	73.00	37.68	15.25
남성성	17	68.35	12.32	17.33
여성성	18	75.94	13.04	11.69
미분화형	51	64.41	36.96	13.19
전체	138	69.63	100	14.90

2.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성역할정체감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보기 위하여, 결혼만족도의 하위 요인별로 일원 변량 분석과 Scheff의 추후검증을 하였다.

결혼만족도의 점수는 여성성, 양성성, 남성성, 미분화형의 순(표 3 참조)으로 나타났는데, 미분화 유형이 나머지 세 유형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p < .05$), 여성성 점수와 양성성 점수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3.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결혼만족도

성역할정체감 유형	N	M	SD
여성성	18	152.55	13.54
양성성	52	144.26	10.40
남성성	17	136.64	7.54
미분화형	51	132.43	14.23

3. 사회적 지지와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및 각 변인들간의 상관 행렬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각 변인들간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상관행렬표

	M	SD	MSY	DHS	SOS
MSY	140.03	26.80			
DHS	25.84	14.06	-.35qq		
SOS	37.68	12.40	.76qq	-.20qq	

qqp<.001 MSY: 결혼만족도
DHS: 일상적인 스트레스 SOS: 사회적 지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변인들 간의 상관을 보면 결혼만족도와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고, 결혼만족도와 사회적 지지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그리고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4. 성역할정체감, 사회적 지지 및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끝으로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에 대해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사회적 지지 이 두 가지 변인 중 어떤 변인이 결혼만족도에 보다 큰 설명력이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각 변인들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단계적 회귀 분석

독립 변인	누가 R ²	F	ΔR ²	F증가분	Sig T
SOS	.5769	185.49	.5769	186.81qq	.0000
DHS	.6154	107.98	.0400	5.67q	.0003
D3	.6197	72.80	.0043	.58	.1991
D2	.6200	54.26	.0003	.04	.6919
D1	.6203	43.12	.0003	.04	.7766

qqp<.01, qp<.05 SOS: 사회적 지지 DHS: 일상적인 스트레스
양성성(d1=0, d2=0, d3=0) 남성성(d1=0, d2=0, d3=1): D3
여성성(d1=0, d2=1, d3=0): D2 미분화(d1=1, d2=0, d3=0): D1

표 5의 결과에 따르면,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사회적 지지중 결혼만족도에 보다 큰 설명력이 있는 변인은 사회적 지지로 58%를 차지하였고, 여기에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부가되었을 때는 4%가 증가한 62%정도 결혼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을 보였다. 다음은 양성성, 여성성, 미분화형, 남성성, 순서였으나 이들의 효과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들의 전체 변인들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62%를 차지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전주 지역에서 맞벌이를 하고 있는 주부 138명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먼저 알아보고, 성역할정체감 유형, 사회적 지지 및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먼저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이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성역할정체감의 전체적인 분포를 보면, 양성

성과 미분화형이 비슷한 분포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남성성과 여성성은 같은 분포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맞벌이 주부들이 남녀평등 사상, 여성 해방운동과 같은 새로운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 양성성을 확립시키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동시에, 이러한 양성성을 지녀야 한다는 압박감과 부담으로 인하여 오히려 남성성과 여성성의 두 가지 특성 모두를 나타내지 못하는 미분화된 성역할정체감을 지닌 주부들이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맞벌이 주부의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전체 결혼만족도는 양성성과 여성성이 비슷한 분포로 가장 높았고, 남성성과 미분화형은 유의하게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부의 성역할 유형 중에서 양성적인 특성과 여성적인 특성이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양성적인 특성과 여성적인 특성 중에서 결혼 생활에 만족도가 더 높은 유형은 여성성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Cosentino와 Heilbrun(1964), Emmerich(1969), Gray(1959), Heilbrun(1960), Helper(1955) 등의 많은 외국 선행연구들에서 여성성의 유형의 여성이 적응력에 부정적인 관계를 보여준 것과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구들 중 최규련(1984), 정승혜(1988), 김명순, 이주옥(1988) 등의 연구들과도 상반되며, 박태운(1983), 김명자(1985), 민경신(1986), 이정연(1987) 등의 연구와는 일치된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닌 주부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전체 결혼만족도 점수는 양성성, 여성성, 남성성이 미분화형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정체감 척도의 문항들이 모두 현대의 한국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특성이기 때문에, 성역할 유형이 어느 것이든 간에 이러한 바람직한 특성들을 많이 지닌 맞벌이 주부들이수록 직장생활과 병행하는 결혼 생활에 대해 더 만족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결과는 미분화된 주부가 취업을 하는 경우에 결혼에 대한 불만족이 매우 많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맞벌이 주부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결혼생활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성역할정체감을 확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맞벌이 주부의 경우 여성적인 특성을 지닌 주부들이 결혼 생활에 대한 적응 요인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는 점에 주의를 해야만 한다. 맞벌이 주부들이 비록 직장생활이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여성적인 특성을 지니는 것이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에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진다. 여성적인 모습은 여성의 권리라는 생각으로 항상 자신과 가정을 청결하게 아름답게 꾸미고, 집안일을 항상 남편과 의논하며, 역할을 공유하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성역할정체감 유형, 사회적 지지 및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결혼만족도에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은 사회적 지지였다. 아내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가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Housenecht 등(1981)은 남편의 지지는 결혼해

체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고 밝혔다. 이는 Burke와 Weir(1982)가 주장한 것 처럼 남편의 지지가 취업여성들의 역할갈등이나 스트레스를 중재 혹은 완충시킬 수 있어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지금까지 성역할정체감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연구에서는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라서 결혼만족도가 다르다는 연구에 한정되었는데, 한 걸음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정체감, 사회적 지지 및 일상적인 스트레스 이 세변인 중에서 어떤 변인이 결혼만족도를 가장 높게 설명해 주는 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 결과는 이제까지는 성역할정체감 유형이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었는데 성역할정체감 유형 이외도 다른 변인들 즉, 사회적 지지나 일상적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더욱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맞벌이가 많아진 현재 사회현상을 볼 때, 전통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남편들이 가정일을 돕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남편들의 전적인 도움없이 가정일을 꾸려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편의 도움과 지지가 전업주부의 결혼만족도와 가장 큰 관련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그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주부. 특히 전주 시내에 거주하는 주로 중류층 이상의 주부만(예, 교사와 보험회사 영업 사원)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해석

시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을 통제한 고른 표집을 통해 성역할 유형에 따른 일상적인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결혼생활만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결혼생활만족도의 측정 도구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Roach등의 M.S.S를 번안하여 수정한 노명희, 이숙(1991)의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주로 남편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만족도를 측정할 때 남편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 시가 관계나 자녀 관계와 같은 하위 관계도 포함시키는 것이 우리 문화에 적합하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보다 포괄적인 결혼만족도 측정 도구의 개발 및 표준화 작업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맞벌이 주부만을 대상으로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알아보았는데, 결혼이란 남녀가 결합하여 부부가 되는 것이므로,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면 더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금혜선(1984). 결혼만족도에 따른 personality 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 김명순, 이주옥(1988). 성과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학 회지, 26권 4호.
- 김미성(1991). 성역할정체감, 스트레스 및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연구. 숙명 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김선영(1989). 도시 저소득층 부인의 결혼만족도와 결혼 불안정성간의 관계. 서울 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김형희(1986). 성역할사회화에 관한 문헌적 탐색: 가정 환경 변인을 중심으로. 원우론총, 제 4집.
- _____(1988). 한국형 성역할검사 개발 연구. 아세아 여성 연구, 27집.
- 김양호(1989).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부부간의 만족도 성신 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정희(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 세트 및 대처 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대학 신입생의 스트레스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태련, 장휘숙(1990). 발달심리학, 박영사.
- 김태현, 유은희(1987). 노년기에서의 성역할정체감과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대한 가정학 회지, 25권 4호.
- 노명희, 이숙(1991).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 행동과 아동의 성취 동기간의 연구. 대한 가정학 회지, 29권 4호.
- 민경신(1986). 우리 나라 주부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박애선(1992). 기혼 여성의 성역할특성과 스트레스 지각이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 회지, 4권 1호.
- 박태은(1983).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가정관리 학회지, 1권 2호.
- 서동인(1985). 취업 주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 변인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서수정(1992).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송말희(1986). 도시 주부의 커뮤니케이션 이해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옥선화, 정민자(1992). 결혼과 가족, 하우출판사.
- 윤진(1981). 남녀 차이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 한국사회학, 15권.
- 이선우(1989). 한국 주부의 심리적 양성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주, 유영주(1986). 결혼만족도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 가정관리 학회지, 4권 1호.
- 이정연(1987). 주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 변수 고찰. 대한 가정학 회지, 25권 1호.
- 이재연(1985). 성역할사회화 이론의 최신 경향. 아세아 여성 연구, 24.
- 이호금(1986). 여성의 취업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재정(1987). 중년 여성의 성역할정체감과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하경, 서병숙(1991). 성역할정체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학 회지, 29권 4호.
- 정옥분(1988). 한미 양국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자존감에 관한 비교 문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승혜(1988). 부부의 성역할태도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복희, 정옥분, 유가효(1985). 인간발달-발달 심리 접근, 서울: 교문사.
- 조인선(1986).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성역할태도 및 자아 개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규련(1984).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학 회지, 22권 8호.
- 최규련(1988). 한국도시주부의 결혼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Bahr, S. K., Chappell, C. B., & Leigh, G. K., Age at marriage, roleenactmen role consensus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 Bem, S. L(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 Bem, S.L., & Lenney(1976). "Sex typing and a voidance of cross-sex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Bur, W.R.(1974). Theory constructipn and the sociology of the family, New York: Wiley.
- Chadwick, B. A., Albrecht, S. L., & Kunz, P. R. (1976). Marital and family role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 Cohen, F., & Lazarus, R.S.(1983). Coping and adaptation in health and illness. In D. Mechanic(Ed.), *Handbook of health, health care, and the health profession*. New York: Basic Books Inc.
- Cook, E.P.(1985). Psychological Androgyny, New York: Pergamon.
- _____(1990). Gender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8.
- Frings-Raferly, S.M.(1980). Learned helplessness as it relates to socialized sex role and locus of contro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 Good, G.E., & Mintz, L.B.(1990). Gender Role Conflict and Dpression in College Men: evidence for compounded rick.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9.
- Hochschild(1973). A Review of Sex Role Resear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 Hoffman(1977). Changes in Family Roles, Socialization and Sex-Difference, *American Psychologist*.
- Jones, W.H., Chemovetz, M.E. & Hansson, R.O (1993). "The enigma of androgyny: Differential implications for males and femal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 Kaplan, A.G., & Sedney, M.A.(1980). The Psychology and sex role: An androgynous perspective. Boston, Toronto: Little, Brown and company.
- McBride, A.B(1990). mental health effects of womens multiple roles. *American Psychologist*.
- Millett(1970). Sexual Politics, New York: Garden City.
- Parson(1955).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o, New York: The Free Press.
- Rollins, B.C., & Galligan(1978). The Developing child and marital satisfaction of parents.
- Scanzoni(1975). "Sex roles, economics factors and marital solidarity in black and white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
- Verbrugge, L.M.(1986). Role burdens and physical health of women and men. *Women and health*, 11.
- Whitley, B.E.(1983). Sex role orientation and self-esteem: A critical meta analytic, 44.
- Whitley(1983). "Sex-Role orientation and self-esteem ; A critical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Personalty and Social Psychology*, 44, 1983.
- Yager, G.G., & Baker, S(1979). Thoughts on androgyny for the counseling psychologist, Paper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87th, New York, September.

Matrrial Satisfaction a Relation Between Sex-Role Identity, Social Support and Daily Stress

Young Mi Lee Chung Hee Kim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arital satisfaction for working housewives(n=138) and to find how the sex-role identity, social support and daily stress affect on their marital satisfaction.

The feminine and androgynous groups are similar numbers, the masculinity and undifferentiated groups are similar numbers in the sex-role identity. The rate of the feminine and androgynous groups are higer than the masculinity and undifferentiated groups. The feminine and androgynous groups reported higer marital satisfaction scores than the masculinity and undifferentiated groups. Between the feminine and androgynous groups does not have significantly differences.

This study find out that social support is very important variable for the marital satisfaction among the sex-role identity, social support, and daily stresses.